

'94년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

1994. 11.

통 일 원

목 차

※ '94년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요약

1. '94년도 북한의 경제시책방향	-----	9
2. 대내경제동향	-----	15
가. 재정부문		
나. 건설부문		
다. 농업부문		
라. 광공업부문		
마. 수송·통신부문		
3. 대외경제동향	-----	46
가. 대외경제개방동향		
나. 대외무역동향		
다. 남북교역동향		
라. 대외경제협력동향		
4. 종합 평가	-----	59

요

약

'94년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요약

< 경제시책 >

- 1994년 상반기중 북한은 당 6기 제21차 전원회의('93.12.8) 결정에 따라 완충기('94~'96)의 중점과업으로 설정된 농업·경공업·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데 주력하였음.
 - 북한은 1994년도 재정계획을 지난해와 같이 긴축예산(전년비 2.4% 증대)으로 편성하였으나, 농업 및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비 6.0%, 5.4%로 대폭 증대
 - 당·정을 비롯한 경제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경제인물을 교체하는 인사 단행
- ※ 북한은 당·정조직을 6개 폐지, 7개 신설하였고 20여개의 주요 공장기업소 경영조직을 경공업 및 무역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으며 정무원의 경제관련 인물 5명 교체
-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견지하여 왔던 석탄, 전력, 금속공업 등 소위 『선행부문』 우선 경제운용은 완충기의 『전략부문』에 밀려 상당한 정도로 약화되기는 하였으나

- 그렇다고 하여 『선행부문』의 정책적 비중이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만큼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.

※ 이는 중공업 편중의 북한 경제구조면에서 볼 때 『전략부문』에 비해 『선행부문』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.

○ 따라서 1994년도 북한의 경제시책은 『선행부문』우선의 경제운용 기조를 견지하는 바탕위에서 농업, 경공업, 무역 등 『전략부문』의 발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.

< 농업·경공업·무역제일주의 방침관련 추진동향 >

○ 북한은 농업제일주의 방침 관철과 관련, 농업부문에 대한 '94년도 재정투입계획을 지난해의 2.8%에서 6.0%로 대폭 증액시키고 투자재원을 『농촌4화』중 특히 기계화·화학화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음.

○ 그러나 기간중 북한의 트랙터 공장, 화학비료공장 등 연관산업부문의 생산설비 확장 내지 현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데다가

-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에 봉착함으로써 기존 설비의 정상적 생산 활동도 부진, 농업부문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.

- 이에 따라 기간중 농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철도수송부문의 구조적인 수송애로로 말미암아 비료, 농약 등 영농 자재의 적기·적지공급에 큰 차질을 빚는 등 농작물의 비배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음.
- 경공업제일주의 방침과 관련하여 북한은 경공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을 지난해의 4.0%에서 5.4%로 상향 책정하고 기존 중앙 경공업 공장과 지방공장의 설비 현대화에 주력하기로 하였음.
 - 이에 따라 기간중 경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출공장·기업소의 조업과 함께 노후시설의 개체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내수용 생산부문의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또한 무역제일주의 방침 관철과 관련해서 북한은 수출품생산기지를 확대 강화하고 생산품의 품질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으나 상반기 중의 대외 무역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는 바
 - 이는 기간중 위탁가공교역 및 중국의 건설수요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- 기간중 북한의 교역실적을 보면
 - 대중국 교역에서는 전년동기의 4.3억달러에서 3.4억달러로 22.0%가 감소하였고

- 대일본 교역에서는 전년동기의 2.2억달러에서 1.8억달러로 16.8%가 감소하였으며
- 대러시아 교역실적은 '94년 1/4분기중 1,210만달러에 불과, 전년동기 비 약 43.7%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.
- 또한 남북교역량도 전년동기의 9,552만달러에서 8,239만달러로 13.7% 감소하였음.

< '94년 상반기 북한의 국가별 교역실적 >

(천달러, %)

구 분	중 국	일 본	러 시 아	남북교역
총교역 규모	336,477 (431,190)	181,733 (218,471)	12,100 (21,492)	82,394 (95,522)
수 출	115,622 (116,460)	110,539 (112,477)	-	73,758 (93,800)
수 입	220,855 (314,730)	71,194 (105,944)	-	8,636 (1,722)
증감율	△ 22.0	△ 16.8	△ 43.7	△ 13.7

주 : ()내 수치는 전년동기 실적
러시아는 1/4분기 실적

< 여타 주요 산업부문 동향 >

- 한편 석탄, 전력, 금속공업 등 『선행부문』을 비롯한 여타 기간산업 부문에서는

- 재정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각공장·기업소들로 하여금 투자재원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『증산·절약투쟁』으로 일관함에 따라
 -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, 노동의욕 상실 등으로 전년동기의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또한 건설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전년동기에 이어 극도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추진되었음.
- 기간중 완공·조업된 북한의 건설실적은 총 19건으로서 건수면에서 전년동기 수준(22건)을 밑돌았고
 - 건설대상도 대체로 경공업공장, 저수지건설 등 소규모적인 단위사업에 불과
- 수송부문 역시 수송애로 해소의 일환으로 철도전기화·중량화가 물동량이 많은 구간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였음.
- 기간중 철기산-형봉간(9km), 관평-회둔간(12km), 개천-순천간(56km) 철도전기화공사 완공
 - 철도중량화는 평양-청진, 평양-신의주 등 물동량이 많은 일부 구간에서 중량레일 및 침목교체 작업 진행

< 종합 평가 >

○ '94년 상반기중 북한경제는

- 북한 핵문제의 지속, 재정사정의 악화, 구조화된 생산침체현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
- 『선행부문』 우선 경제운용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『전략부문』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였으나
- 『선행부문』 및 『전략부문』 모두에 정책적 부담만을 분산·확대 시켜 오히려 정책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
- 이러한 성장선도부문의 위축은 여타 산업부문에까지 확산됨으로써 북한경제 전반이 활기를 상실하였던 것으로 평가됨.

< 선행부문과 전략부문 >

선 행 부 문	전 략 부 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0년대들어 북한은 원자재 및 에너지부족난 해소를 목적으로 전력, 석탄, 금속공업 부문을 선행부문으로 지칭하고 있음. ○ 이전에는 동 부문을 기간산업 부문에 포함시켰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은 당 6기 제21차 전원회의 ('93.12.8)을 통해 완충기('94~'96년)중의 전략적 방침으로 농업·경공업·무역 제일주의를 설정한 바 있음. ○ 이에 따라 당원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농업, 경공업, 무역부문을 통털어 『전략부문』으로 약칭함.

'94년도 상반기
북한경제동향

1. '94년도 북한의 경제시책방향

- 북한은 지난해 말 제3차 7개년계획('87~'93) 수행 총과보고를 통해 동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향후 2~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한 바 있음.
- 또한 북한은 완충기중에 농업제일주의, 경공업제일주의, 무역제일주의 등을 중점 경제전략으로 구사할 것임을 밝혀 종래 중공업 우선정책의 변화를 시사하였음.
-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변화는
 - 식량 및 소비재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가 체제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
 - 산업구조 불균형 심화가 경제적 단층현상을 유발,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
 -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된 상황하에서 위축된 대외무역을 확대·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산업인 경공업부문의 육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
- 특히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('94. 4. 6~7)에서 첫째 의제로 “조선로동당이 내놓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” (강성산 총리보고)를 상정하고
 - 농업·경공업·무역부문을 비롯, 도합 15개 부문에 걸친 이른바 “부문별 과업 수행방도”를 내용으로 하는 『최고인민회의 결정』을 채택하였음.

- 동 회의에서 강성산은 보고를 통해 완충기 과업의 성과적 진행 여부는 “정무원이 제구실을 하는가,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”고 지적하면서 정무원 책임제, 정무원 중심제의 필요성을 최초로 강조하였는 바
 - 이는 그간의 당 우위 내지 당·정 이원적 경제관리에서 파생되는 마찰과 비효율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정무원 중심의 경제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됨.

- 또한 채택된 『최고인민회의 결정』에서는 ▲대외무역 발전 ▲나진·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▲원유공업부문 투자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.

-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색금속, 시멘트 등 수출품 생산을 확대하고 신용을 철저히 지키며, 가공무역, 되거리무역(중개무역), 중계무역, 합영·합작, 경제기술협조, 대외건설 등 여러가지 무역 확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

- 그동안 북한의 대외경제거래에서 최대의 외화획득 원천이 되어왔던 위탁가공무역, 금·아연 등 제1차 금속제품, 시멘트 등 일부 공산품의 수출증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
- 이를 위해서는 “신용은 무역에서 생명이며 시장을 넓혀 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” (이성대 대의원·대외경제위원장)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외국기업이 북한과 거래시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납기준수 등 계약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.
- 나진·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“외국기업체들의 투자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하게 벌일 것”이라고 함으로써
 - '91.12월 동 지대 선포이후 계속 추진해온 관련법령 정비 및 외국기업투자 유치활동을 더욱 의욕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임.
- 원유공업 부문에서는 “투자를 늘여 탐사설비와 장비를 강화하며 유망 지구들에 대한 탐사에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원유매장지를 찾아내도록 할 것”이라고 결정한 바
 -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한당국이 원유탐사에 대한 구체적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금번 최고인민회의 결정이 처음으로서
 - 그간의 탐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장비에 의한 원유매장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임.

-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를 통해 제시한 완충기간중의 주요 부문별 경제과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.

< 완충기간중 북한의 주요 부문별 경제과업 >

< 농업부문 >

- 연간 1,500만톤 알곡생산목표 달성
- 농촌4화(수리화, 전기화, 기계화, 화학화) 수준 제고
- 영농방법 및 영농체계 개선
- 간석지 개간 등 경지면적 확대
- 과일생산증대 및 축산업 발전 도모

< 경공업 >

- 천생산 1.2배(연평균 증가율 6.3%) 이상으로 증대
- 신발생산 1.1배(연평균 증가율 3.2%) 이상으로 증대
- 지방원료에 의한 소비품생산 비중 70% 실현, 지방공업의 수출기지화 등 지방공업 발전 도모
- 비날론 등 화학섬유 및 합성수지생산 각각 1.2배(연평균 증가율 6.3%)로 증대

< 대외무역 >

- 수출품 생산기지 확대 강화
- 품질 제고

< 선행부문 >

- 석탄, 전력생산량 및 철도화물수송량 각각 1.3배(연평균 증가율 9.1%) 이상 증대
- 금속공업 발전 도모(철강재 수요 보장)

○ 완충기 첫해인 '94년도 북한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보면

- 북한은 당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농업·경공업·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 동시에
-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석탄, 전력, 금속 등 북한경제의 선행부문과 철도운수 등 애로부문에 계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음.

○ 이를 위해 북한은 '94년도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과업이 제시하였음.

< '94년도 북한의 경제시책방향 >

- 농업, 경공업, 대외무역 발전 역량 집중
 - 농업부문 : 수리화, 전기화, 기계화, 화학화 등 농촌 4화 실현 및 영농자재 공급 증대를 통한 곡물생산목표 달성

- 경공업부문 : 경공업공장 현대화, 원료생산 강화, 공장 가동 만부화 등 경공업 혁명을 위해 소비재 생산 획기적으로 증대 도모
- 대외무역 : 대외시장 적극 개혁, 신용도 제고, 수출품 생산기지 조성, 위탁가공무역 발전 등을 통해 수출증대 주력
- 석탄, 전력, 금속공업 등 선행부문 및 철도수송부문의 강화
 - 석탄, 전력의 결정적 증산
 -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, 수송조직체계 개선, 철도 증량화 실현 등으로 수송 수요 보장
- 증산·절약운동을 통한 생산 정상화

○ 요컨대 '94년도 북한의 경제운용 방향은

- 대내적으로 증산과 절약을 계속 전개하는 가운데 농업, 경공업, 무역부문 등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('93.12.8)에서 제시된 중점 육성산업의 생산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,
- 대외적으로는 무역증대 및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탈퇴 및 어려운 대내경제사정 완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됨.

2. 대내경제동향

가. 재정부문

-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 제2일회의('94. 4. 7)에서 정무원 재정부장 윤기정이 보고, 상정한 '93년도 결산 및 '9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음.
- '93년도 예산집행결과는 세입 405억 7,120만원(188.7억달러), 세출 402억 4,297만원(187.2억달러)으로 3억 2,823만원(1.5억달러)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결산되었음.
 -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이 종료되는 '93년도의 재정운용이 “북한을 고립·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,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” 고 강조
- 그러나 '93년도 북한의 경제정책방향은 석탄, 전력, 금속공업 등 이른바 선행부문의 발전을 통한 각급 공장, 기업소들의 생산정상화를 도모하여 구조적인 침체국면을 타개하는 것이었으나
 - '93년도 예산편성 자체는 경제난 심화에 따른 세입증대가 한계에 달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경제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였음.

- '94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2.4% 증가된 415억 2,519만원(188.8억달러)으로 책정되었으며,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('93.12.8)에서 제시된 농업, 경공업,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음.
- 특히 제3차 7개년계획('87~'93)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기존 노선을 수정한 북한은 '94년도가 완충기('94~'96)의 첫해라는 점에 중요한 의의를 두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강조하였음.
- 이를 위해 북한은 '94년도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이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, 재정관리의 효율화, 올바른 독립채산제의 실시 등을 통한 세원확보에 주안을 두었음.
- 따라서 '94년도 북한의 재정운용은
 - 재정의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면서 증산·절약의 강도를 높여 부족한 세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농업, 경공업, 무역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나
 - 투자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외자도입이 없는 『자력갱생』만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.

1) '93년도 결산내용

- 북한이 동 회의에서 발표한 '93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토대로 산출된 각 세출항목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음.

< '93년도 세출항목별 결산내역 >

구 분	금 액	구성비(%)	전년비 증가율(%)	
세 입	※ 405억 7,120만원 (188.7억달러)	100.8	※ 2.6	
세 출	※ 402억 4,297만원 (187.2억달러)	100	※ 2.4	
세 출 내 역	인민경제비	272억 9,067만원 (126.9억달러)	67.8	※ 2.5
	사회문화 시책비	76억 5,908만원 (35.6억달러)	19.0	※※2.0
	군 사 비	46억 2,794만원 (21.5억달러)	※11.5	3.3
	관 리 비	6억 6,528만원 (3.1억달러)	1.7	- 3.4
재 정 수 지	3억 2,823만원 (1.5억달러)	-	0.7	

주) ※ 북한 발표 수치

※※ 당원 평가치

북한 『원』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달러 : 2.15원 적용

- '93년도 결산총액은 402억 4,297만원(187.2억달러)으로 전년비 2.4% (세출기준) 증액 집행되었으며, 세출항목별 결산내역을 보면
 - 인민경제비는 세출총액의 67.8%인 272억 9,067만원(126.9억달러)으로 전년비 2.5% 증가되었고
 - 사회문화시책비는 세출총액의 19%인 76억 5,908만원(35.6억달러)으로 전년비 2.0% 증가되었으며
 - 군사비는 세출총액의 11.5%인 46억 2,794만원(21.5억달러)으로 전년비 3.3% 증가, 여타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
 - 관리비는 세출총액의 1.7%인 6억 6,528만원(3.1억달러)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3.4% 감소하였음.

※ 그러나 북한의 '93년도 실제군사비는 예산상의 군사비와 함께 인민경제비, 사회문화시책비 등에 분산 은닉된 군사비를 포함할 경우 총 예산규모의 30% 수준인 56.2억달러로 추정됨.

- 북한은 지난해에 '93년도의 기본적인 재정운용방향을 “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자립적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는데”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했으나, 실제로 '93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
 - '93년도가 제3차 7개년계획의 종료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동계획의 중점대상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기피한 채, “조선반도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로 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국방에 돌리는 어려운 조건”이었음을 강조하였고

- 중·소규모로 건설 또는 완공·조업된 일부 공장·기업소들을 기간 중의 건설실적으로 나열하면서 갖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『우리 식 사회주의』에 입각, 재정운용을 흑자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으며
- '93년도 세입증가율 자체도 '92년도의 6.3%보다 대폭 감소된 2.6%에 불과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
- 전반적으로 '93년중 건설 및 생산활동이 극히 부진했던 것으로 보임.

○ 따라서 북한은 '93년도에 초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

-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점 건설대상인 순천비날론공장, 사리원카리 비료공장 등 대규모 산업시설 건설을 거의 중단한 가운데
- 신규 건설사업보다는 기존공장·기업소내 일부 생산공정 확장과 각종 경제선동을 통해 침체된 생산분위기의 전환을 시도하였으나
-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부족, 노동의욕 상실 등으로 경공업부문의 일부 직물 및 피복공장을 제외한 대부분 공장·기업소들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
- 특히 재정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승기념관, 동명왕릉, 고려태조왕릉, 단군왕릉 등 체제선전과 관련된 비생산적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많이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됨.

2) '94년도 예산편성

- 북한이 동 회의를 통해 발표한 '94년도 예산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각 세출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.

< '94년도 세출항목별 예산편성내역 >

구 분	금 액	구성비(%)	전년비 증가율(%)	
세 입	※ 415억 2,519만원 (188.8억달러)	100	※ 2.4	
세 출	※ 415억 2,519만원 (188.8억달러)	100	※ 3.2	
지 출	인민경제비	281억 6,397만원 (128.0억달러)	67.8	※ 3.2
	사회문화 시책비	78억 7,353만원 (35.8억달러)	19.0	※ 2.8
내 역	군 사 비	48억 1,692만원 (21.9억달러)	※11.6	4.1
	관 리 비	6억 7,077만원 (3.0억달러)	1.6	0.8

주) ※ 북한 발표 수치

북한 『원』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달러 : 2.20원 적용

○ '94년도 예산총액은 415억 2,519만원(188.8억달러)으로 전년비 2.4% (세입기준) 증액 편성되었는 바, 세출항목별 구성내용을 보면

- 인민경제비는 예산총액의 67.8%인 281억 6,397만원(128.0억달러)로 전년비 3.2% 증액 편성되었고

- 사회문화시책비는 예산총액의 19.0%인 78억 7,353만원(35.8억달러)로 전년비 2.8% 증액 편성되었으며

- 군사비는 예산총액의 11.6%인 48억 1,692만원(21.9억달러)로 전년비 4.1% 증액 편성되었는데 비해

- 관리비는 예산총액의 1.6%인 6억 7,077만원(3.0억달러)로 전년비 0.8% 증액 편성되는데 그쳤음.

※ 그러나 북한의 '94년도 실제군사비는 예산상의 군사비와 함께 인민경제비, 사회문화시책비 등에 분산 은닉된 군사비를 포함할 경우 총 예산규모의 30% 수준인 56.6억달러로 추정됨.

○ '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“당이 제시한 혁명적 경제전략에 따라 농업제일주의, 경공업제일주의,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여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앞세우는데 나라의 경제자원을 집중하며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” 에 중점을 두었다고 선언하였음.

○ '94년도 예산편성내역의 특징을 보면

- 총예산규모가 세입기준으로 전년비 2.4% 증가되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연평균 예산증가율 5.2%에 비해 초긴축·예산으로 편성된 점

< 제3차7개년계획 기간중 예산증가율 >

(단위 : %, 세입결산기준)

'87	'88	'89	'90	'91	'92	'93	연평균
6.3	5.2	5.3	6.2	4.2	6.3	2.6	5.2

-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증가율을 지난해의 2.1% 보다 대폭 높은 6%로 편성, 당면한 식량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점
- 경공업부문의 투자를 지난해의 4.1%보다 높은 5.4%로 증액 편성하면서도 석탄·전력·철도운수부문의 투자는 전년비 3.0%로 책정함으로써 경공업부문과 함께 소위 선행부문의 병행발전 구도를 나타낸 점
-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증가율은 전년비 4.1%로 높게 책정,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등임.

○ 따라서 '94년도 북한의 재정운용은

- 대내적으로 증산과 절약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가운데 농업, 경공업, 무역부문 등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중점 육성 산업의 생산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

- 대외적으로는 무역증대 및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어려운 대내 경제사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됨.

나. 건설부문

- o '94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경제건설은 전반적으로 전년동기에 이어 극도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음.
- 기간중 완공·조업된 북한의 건설실적은 총 19건으로서 건수면에서 경제건설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전년동기 수준(22건)을 밑돌았고
- 건설대상도 대체로 지난해보다 규모가 작은 경공업공장 또는 저수지 건설, 단거리의 철도지선 건설 등 소규모적인 단위사업에 불과한데다 새로 착수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은 전무하였으며
- 특히 평양-향산간 고속도로, 12월화력발전소 등 기왕에 건설을 추진해 오던 주력 단위건설사업은 공사진척이 매우 부진한 상황을 보였음.

< '92~'94년도 상반기중 북한경제 건설 실적 >

(단위 : 건, 완공, 조업기준)

구 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총 계	월평균
'92년	0	19	8	40	5	2	74	12
'93년	2	6	2	7	3	2	22	4
'94년	1	3	1	14	0	0	19	3

- 종래 북한경제건설동향을 보면, 김부자의 생일시기인 2월과 4월중에 치적·과시의 일환으로 건설실적을 집중·발표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동시기를 전후하여 건설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던 것처럼 나타났었음.
- 김부자 생일시기인 2월과 4월중 북한의 경제건설실적을 보면 '94년도 총 17건으로서 전년동기 실적 12건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예년 수준에는 크게 밀돌았음.
- 특히 김일성생일시기에는 전년동기보다 2배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정일생일시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주목됨.

< 김부자생일행사시기의 경제건설실적 >

(완공·조업기준)

구 분	'91	'92	'93	'94	평 균
2 월 (김정일생일행사시기)	10건	19건	6건	3건	9.5건
4 월 (김일성생일행사시기)	26건	40건	7건	14건	21.8건

- 이와 같이 '94년도 상반기중 경제건설실적이 전년동기와 마찬가지로 부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긴축으로 편성한 재정지출 계획마저 원만히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.

- 기간중 북한의 경제건설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
 - 경공업부문에서는 1/4분기중 신규 공장의 건설실적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다가 김일성 생일을 목전에 두고 평성시에 은덕피복공장(4.12), 평성수예품공장(4.12)과 장산수출품공장(4.13) 등 총 5개의 공장을 집중적으로 완공·조업하였고
 -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건설중에 있는 동평양화력, 12월화력, 해주화력 등 화력발전소와 남강, 태천5호, 의진, 금야강 등 수력발전소 조차도 건설용 설비·자재의 공급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음으로써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으며
 -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수출용 유색금속의 생산·공급을 위해 성천시에 5.18 광산이 새로이 조업한 것외에는 건설실적이 없음.
 - 또한 수송부문에서는 철기산-형봉간(9km), 관평-회둔간(12km) 철도 전기화 공사가 완공·개통되었으나, 김정일 생일이전 완공목표로 추진되었던 개천-순천간(56km) 철도전기화공사는 목표보다 2개월 늦어진 4월에야 완공을 보게 되었으며 평양-향산간 고속도로공사가 계속 추진되었으며
 - 농업부문에서는 황해남도의 금성(청수도)간석지 건설과 함께 다호저수지, 군민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건설이 계속 추진되었고 특히 UNDP지원하에 국가과학원의 산림과학분원 버섯연구소가 새로이 조업하게 되었으며

- 이 밖에 비생산적 건설부문에서는 고려태조 왕릉 개축이 완료되었고 조총련의 도움을 받아 평안남도 구강병예방원의 건설이 완공되었으나 전년동기와 같이 건설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하였음.
- 금년도 상반기중 북한이 추진해온 경제건설동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
 - 첫째, 재정사정의 악화로 투자지출을 전년동기에 비해 더욱 억제하는 가운데 새로운 착공사업 보다는 진행중인 일부 건설공사와 소규모 건설대상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점
 - 둘째, 김일성 생일시기에 와서 경제건설 건수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규모면에서 건설대상 대부분이 전년도 수준을 크게 밑도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점
 - 셋째, 경공업제일주의를 제창하고 있음에 따라 직물, 피복 등 경공업 부문의 육성 발전과 수출품 생산기지 조성에 제한적이거나 투자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임.
- ※ 북한은 '94년도 재정을 전년대비 2.4% 증가에 불과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『인민경제비』(전년비 3.2% 증액), 『사회문화시책비』(전년비 2.8% 증액) 등에서 건설관련 재정지출 증가폭의 확대 도모

- 이와 같이 '94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경제건설이 부진한 것은 재정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심각한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애로에 직면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건설활동이 전년도에 이어 계속 활기를 잃고 침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< '94년도 상반기중 경제건설실적 >

(완공·조업기준)

월별	건 설 실 적
1월	○ 고려태조 왕건왕릉 개축(1.31)
2월	○ 정평군, 다호저수지 완공(2.10) ○ 철기산-형봉간(9km), 관평-회둔간(12km)철도전기화공사 완공·개통(2.11) ○ 평강군에 군민저수지 완공(2.13)
3월	○ 국가과학원 산림과학분원 버섯연구소 조업(3.3)
4월	○ 평남 구강병예병원 조업(4.10) ○ 성천시 5.18광산 조업(4.10) ○ 평성 은덕피복공장 조업(4.12) ○ 평성 수예품공장 조업(4.12) ○ 개천-순천간(56km) 철도전기화공사 완공(4.12) ○ 장산수출품공장 완공(4.13) ○ 남포청년다리 개통(4.13) ○ 신의주시·연변자치주간 합작회사 『신연합작사』 조업(4.5)

월별	건 설 실 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천군 금성간석지 개간공사 완공(4.18) ○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칠리탄광 2.4갱 조업 ○ 전기수리공장 운모종이생산공장 조업 ○ 순천직물공장 현대화공사 완공 ○ 순천수출들공예공장 조업 ○ 평성시 전신전화시설현대화공사 완공
5월, 6월	없 음

다. 농업부문

- 북한은 기간중 김일성 신년사 및 당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촉구하는 각종 경제선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.
 -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등 협동농장들의 신년사 관철 궐기모임 진행
 - 로동신문은 “당의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”는 제하의 사설(1.17)을 비롯 각종 경제선동 보도 강화
 - 농근맹중앙위원회 제22차 전원회의(1.19~20) 개최
 -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『김일성 서한』관철을 위한 군중대회를 지방별로 진행(3.3~8)
 - 전국축산부문 열성자회의(4.28~29) 개최

- 특히 북한은 『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』 30주년을 맞아 전국농업대회를 개최(2.25)하고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당면 과업들을 강구하였음.
- 김일성은 동대회에 불참하였으나 서한 형식으로 향후 북한농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.

< 향후 북한농업의 과업 >

- 농촌 3대혁명(사상, 문화, 기술) 심화 발전
 - 계급 교양·집단주의 교양 강화(마비된 사상의식 일소)
 - 도·농간 차이 해결 위해 5대과업 설정
 - 농촌의 전기화, 수도화, 버스화, 중앙난방화, 가스화
 - 농촌 4화 확대 발전
 - 농촌의 기계화, 화학화, 수리화, 전기화
- 농업생산의 과학화, 집약화
 - 농업과학연구사업 강화
- 농업의 공업화, 현대화
 - 공업노동, 농업노동간 차이 점차 해소
 - 농장원 1인당 논밭 10정보이상 관리
- 농업생산 증대
 - 알곡생산목표 1,500만톤 달성

- 논벼, 강냉이 정보당 수확고 각각 8톤이상 나아가서 10톤이상으로 제고
- 경지면적 확대, 농산물 원료 원만히 보장
- 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
 -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,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,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
-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점차 전환
 - 군안의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
 -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국영농장경영위원회 또는 농업연합기업소로 전환
 - 독립채산제 실시
-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수준 제고

자료 : 김일성이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 『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』에서 추출

- 동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의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
 - 북한은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 농민들의 사상의식 마비로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·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아래 계급교양·집단주의 교양 등 사상개조사업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내세운 점,

- 농업생산 증대에 있어서 과학·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농업의 과학화, 집약화를 강조한 점,
 - 농업조직에 있어서는 협동적 소유형태인 『협동농장』들을 전인민적 소유형태인 『농업기업연합기업소』(또는 국영농장경영위원회)로 점차 전환, 농업의 공업화를 강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압축됨.
- 그러나 동대회를 통해 제시된 북한의 과업들은
- 『우리식 사회주의』, 기왕의 농업지도 체계 등을 견지·강화하는 바탕위에서 영농의 분권화 보다는 일원화에,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 주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
 - 현재 낙후된 북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·적극적인 해결 방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.
- 북한은 당의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전년비 투자증가율은 지난해의 2.8%에서 6.0%로 크게 높이고 투자재원을 『농촌4화』중 특히 기계화, 화학화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음.
- 북한의 각 협동농장들은 당이 설정해 준 알곡 1,500만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논벼와 옥수수를 각각 정보당 8~10톤이상 수확할 것을 결의하였음.

< '94년도 북한 주요 협동농장의 정보당 곡물생산목표 >

(톤/정보, 조곡기준)

협동농장	논 벼	옥수수	위치
정 방	9이상	10이상	사리원시
외 서	-	10이상	개천시
오 현	10이상	10이상	연안군
청 산	10	11	강서구역
률 곡	10이상	-	박천군
대천분장	9이상	-	상원군종합농장
리 현	10	11	사동구역
가 하	8이상	10이상	우시군
관 해	10	-	운전군
풍 정	10이상	10이상	증산군
강 선	10	10	천리마구역
삼 지 강	10	10	재령군
서 림	10	10	"
재 천	10	10	"
강 교	10	10	"
북 지	10	10	재령군
김 제 원	10	10	"
동 신 흥	10	10	"

협동농장	논 비	옥수수	위치
굴해	10	10	"
새날	10	10	신천군
새길	10	10	"
화산	10	10	"
반정	10	10	"
오국	10	10	안악군
염곳	10	10	"
대추	10	10	"
로암	10	10	"
구와	10	10	"
원화	10	12	평원군
룡산	8이상	10이상	개풍군
룡중	10이상	10이상	문덕군

- 또한 각급 공장·기업소에서는 지역별로 거름, 소농기구, 영농자재 등 부족한 지원물자를 마련, 농촌지원활동을 전개하였음.
- 북한은 기간중 금성(청수도)간석지 건설사업과 함께 다호저수지, 군민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활발치 못하였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자금 부족으로 인해 농작물 비배관리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였음.

< '94년도 간석지 건설계획 >

건설담당	건설계획
황남 청단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	청수도 간석지 준공 공사
평북 염주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	대계도 간석지 중간 제방공사
황해 간석지 건설 종합 기업소 및 황남 옹진 간석지 건설 사업소	은률간석지, 강령간석지 하천 및 중간 제방공사
평북 선천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	과산간석지 중간 제방공사 및 홍건도 간석지 건설준비
간석지 확보 목표	총 6,000여정보

- 김일성은 기간중의 가뭄현상과 관련 평남 온천군 금당협동농장(6.19)과 평양시 대성구역협동농장(6.21)을 현지지도 하고 농촌근로자의 사명감과 농작물의 철저한 재배관리를 촉구하였음.
- 이로 볼 때 '94년도 상반기 북한농업동향은 북한의 농업제일주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나아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농장원들의 근로의욕 감퇴와 영농자재 부족에 직면, 오히려 생산활동이 전년도보다 위축되었을 것으로 평가됨.

라. 광공업부문

- 북한은 기간중 김일성 신년사 및 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('93.12.8) 결정 관철을 촉구하는 각종 경제선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.
- 공장, 기업소 단위의 신년사 관철 종업원 쫓기모임 진행
- 직총중앙위원회 제27차 전원회의(1.12~13), 전국직맹선전일군회의(1.18), 녀맹중앙위원회 제19차 전원회의(1.20~21) 등 개최
- 전국 자연과학연구부문 열성자회의(4.8~10), 전국 석탄공업일군 대회(4.20~22) 등 개최

< 북한 주요 공장, 기업소의 신년사 관철 쫓기모임 >

일자	공장·기업소	결 의 내 용
1. 4	홍남비료연합 기업소	○ 지난해 실적대비 질소비료 1.4배, 인비료 2.5배 제고 목표 ○ 고압합성탑, 압축기 등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 주력
"	북창지구탄광 연합기업소 제남탄광	○ 석탄생산 전년비 1.5배 증대 목표
1. 5	신의주신발공장	○ 설비관리, 기술관리, 노동행정사업 개선으로 480분내 신발 증산
"	동대원피복공장	○ 전년도 실적대비 124% 성장목표 설정 - 올해 수출계획 완수 결의
1. 7	김책제철연합 기업소	○ 전국 금속공장들에 사회주의 경쟁 호소

일자	공장·기업소	결 의 내 용
		○ 올해 철강재 생산목표 전년비 1.2배이상 으로 설정

- 특히 북한은 경공업제일주의 방침 관철을 위해 경공업부문의 전년비 투자증가율을 지난해의 4.0%에서 5.4%로 상향 책정하고 기존 중앙 경공업과 지방공장의 설비 현대화에 주력하였음.
- 또한 화학섬유, 합성수지 생산증대 및 각종 경공업 원자재의 생산 공급에 주력하기로 하고 각 지방공업부문 공장, 기업소들로 하여금 자체의 원료 기지를 더 많이 확보토록 지시하였음.
- 각 군들에서는 200정보 이상의 자체 원료기지를 조성하며 특히 식료 공장들에서는 50정보 이상의 재배 원료기지를 확보토록 시달
- 이에 비해 석탄, 전력, 금속공업 등 『선행부문』의 전년비 투자증가율은 지난해의 3.5%에서 석탄, 전력공업부문은 3.0%로, 금속공업부문은 2.8%로 하향 책정되었음.

< '93 및 '94년도 북한의 주요 부문별 예산증가율 >

(단위 : %)

구 분		'93년	'94년
전 략 부 문	농 업	2.8	6.0
	경 공 업	4.0	5.4

구 분		'93년	'94년
선행부 문	석탄공업	3.5	3.0
	전력공업	3.5	3.0
	금속공업	3.5	2.8
총예산 평균증가율		2.4	3.2

* 출처 :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('94.4.6~7) 윤기정 재정보고

- 이는 북한이 『선행부문』에 대한 신투자 확대보다는 채탄장비의 보수·교체, 추진중인 발전소의 계속적인 건설, 기존 금속공장의 보수·정비 등에 그치겠다는 정책적 의도로서
 - 지난해까지 견지하여 왔던 선행부문 우선 경제운용이 상당한 정도 약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임.
- 따라서 기간중에는 『선행부문』에 대한 재정조달의 어려움으로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근로의식이 저하된 노동자들에게 소위 『정치사상사업』을 앞세워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촉구하는 등 이완된 노동조직의 관리강화에 주력하는데 머물렀음.
- 이에 따라 '94년도 상반기중 선행부문의 건설실적은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칠리탄광의 2.4갱이 조업한 것외에는 이렇다할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며
 - 제3차 7개년계획('87~'93년)의 차질로 아직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10여개의 수·화력발전소 건설도 건설용 자재부족, 연관산업부문의 발전설비 생산감소 등으로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음.

< 진행중인 주요 발전소 건설추진 현황 >

(1994.6 현재)

발전소명	소재지	건 설 현 황
남강발전소	평양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담당 : 평양시 사로청위원회 제1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제4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○ 큰물막이 언제공사 완료 ○ 발전기실 굴착 완료 ○ 발전기 1호 회리실 조립 ○ 제방가배수로 완전막이공사 완료
태천5호 발전소	평안북도 태천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십개의 언제수문 조립 ○ 언제타입공사 기본적 완성
어랑천 발전소	함경북도 어랑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담당 : 제2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○ 언제기초작업을 위한 도로건설, 수로 구조물 공사 진행
녕원발전소	평안남도 녍원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담당 : 인민군 ○ 언제공사 추진중
의진발전소	자강도 시흥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초 콘크리트작업 완료 ○ 언주설치 완료 ○ 발전기실 굴착 완료
동평양화력 발전소	평양시 락랑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담당 : 화력발전소연합기업소 수력발전소설비기계화기업소 ○ 1호보일러 조립 ○ 공업용수 화학정수장, 운탄재처리, 옥외 변전소 계통 완공 ○ 1호 발전설비 조립

발전소명	소재지	건 설 현 황
		○ 2호보일러 및 발전설비 조립중
12월화력 발전소	남포시 천리마 구역	○ 건설담당 : 2.21건설사업소 ○ 1호 및 2호보일러 설비조립 ○ 화학정수장, 석탄하차장, 저탄장, 재처리장, 펌프장 등 건설
해주화력 발전소	황해남도 해주시	○ 건설담당 : 제55건설사업소 ○ 1호보이러와 2대의 송풍기설치 기초공사 완료 ○ 타빈계통 기초 콘크리트 타입작업 완료 ○ 보이러, 송풍계통, 화학정수장, 굴뚝공사 등 보조건물 기초공사 완공 ○ 1호발전기실 건설, 보이러실 기초공사 완료

- 『선행부문』의 생산활동 역시 북한의 집중적인 경제선동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찾지 못해 직면한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.
- 기간중 북한은 각지 탄광들로 하여금 석탄생산에 필요한 침목, 동발, 탄차 등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토록 유도하고 철강재 증산을 위해 파철수집운동을 『전군중적 운동』으로 전개하였으나 북한근로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그 성과는 부진
- 한편, 북한은 기간중 심화된 경제난 타개의 일환으로 일부 당·정 경제기구를 개편하고 정무원의 조직책임자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음.

- 이는 제3차 7개년계획 실패에 따른 문책과 아울러 당·정의 경제 부문 조직을 재정비하여 3년간의 완충기간중 취약한 경제기반을 일신해 보려는 의도로 보임.

< 당·정기구 개편 내용 >

구 분	신 설(개 칭)	폐 지
로동당중앙위 산하부서	경제정책 검열부	경제계획부
	군수공업정책 검열부	기계공업부
	농업정책 검열부	농업부
	계획재정부	행정부
정 무 원	원유공업부	-
	국가과학원	과학원
	원자력총국	원자력공업부

< 정무원 경제인물 개편 내용 >

직 책	신 임	해 임	일 자
국가계획위원장	홍 석 형	김 달 현	'93. 12. 7
임 업 부 장	리 춘 석	김 재 룰	'94. 1. 12
국가과학원장	김 길 연	김 경 봉	'94. 2. 9
국가과학기술 위원장	최 희 정	리 자 방	" "
광 업 부 장	김 평 길	김 필 환	'94. 3. 2
건 설 부 장	조 윤 희	조 철 준	'94. 5. 5

- 또한 북한은 기간중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불균형 심화, 생산단위조직 운영상의 비능률 등 직면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주요 생산단위들의 조직개편작업을 광범위하게 추진, 생산관리체제의 재정비하였음.

< 기간중 북한의 주요 공장·기업소 조직개편 내용 >

(확대·격상)

부 문	개 편 내 용
임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량강도림업총국 → 량강도림업연합총국 ○ 자강도림업총국 → 자강도림업연합총국 ○ 121호림업총국 → 121호림업연합총국
경공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발공업총국 → 신발공업연합총국 ○ 조선비단회사 → 조선비단회사연합회사 ○ 평양시지방공업총국 → 평양시지방공업연합총국
기계·금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룡성기계총국 → 룡성기계연합총국 ○ 부령야금종합공장 → 부령합금철연합기업소
대외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은하무역총국 → 은하무역연합총국
수 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철도건설총국 → 철도건설연합총국 ○ 해운총국 → 해운연합총국

(축소·격하)

부 문	개 편 내 용
임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서지구탄광연합기업소 → 강서지구탄광종합기업소 ○ 3월17일수력발전연합기업소 → 3월17일수력발전종합기업소 ○ 태천수력발전연합기업소 →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○ 검덕광업연합기업소 → 검덕광업종합기업소
화학공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→ 신의주화학섬유종합공장
기계공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→ 김중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○ 금성뜨락또르연합기업소 →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 ○ 4월3일공작기계연합기업소 → 4월3일공장 ○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→ 승리자동차종합공장

○ 주요 공장·기업소 조직개편의 특징을 보면

- 종전과는 달리 중공업부문의 생산단위들을 『연합기업소』에서 『종합기업소』 또는 일반공장으로 그 기능과 규모를 과감히 축소한 점
- 이에 비해 경공업 및 무역부문과 연관된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단위들은 조직규모를 종전보다 격상시켰다는 점
- 생산조직면에서 『총국』보다 한단계 높은 『연합총국』이라는 단위조직을 새로이 신설한 점 등임.

< 북한의 연합기업소와 종합기업소의 차이 >

연 합 기 업 소	종 합 기 업 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산물 생산에서 생산 기술적으로 연계가 긴밀한 이종의 연관 기업소들이 하나의 대규모 생산경영단위로 통합된 기업조직 형태 ○ 경영상 통합된 기업소, 직장들이 상대적 독자성 보유 ○ 규모면에서 종합기업소보다 상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로 생산공정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연결된 동종의 기업소들이 하나의 대규모 생산경영단위로 통합된 기업조직 형태 ○ 경영상 통합된 기업소, 직장들이 상대적 독자성 미보유 ○ 규모면에서 연합기업소보다 하위

○ 따라서 북한의 생산경영단위 조직개편은

-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('93.12.9) 결정에 따라 경공업 및 대외무역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
- 그동안의 중공업우선정책으로 누적·비대해진 관련부문 생산경영 단위들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대신 경공업부문을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
- 대내적으로는 심화된 산업구조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북한당국 나름대로의 “내부적 대수술”로 분석·평가됨.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'94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광공업부문은
 - 완충기 과업으로 설정된 농업, 경공업, 무역 등 『전략부문』에 밀려 『선행부문』을 비롯한 기간산업부문의 재정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된 상황에서
 - 각 공장·기업소들로 하여금 투자재원의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『증산·절약투쟁』에 의존, 경제선동의 강도만을 높인 결과
 - 동부문의 건설 및 생산동향은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, 노동의욕 상실 등으로 전년동기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·평가됨.

마. 수송·통신부문

- 북한은 '94년도에 철도의 전기화와 함께 중량화를 적극 실현하여 구조적인 수송애로를 해소시킨다는 방침아래 철도운수부문의 투자 규모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비 3.0% 증액 책정하였음.
- 이에 따라 상반기중 철기산-형봉간(9km), 관평-회둔간(12km), 개천-순천간(56km)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·개통되었으나 새로운 철도부설이나 확장은 투자재원부족으로 착수되지 않았음.

- 철도중량화에 있어서도 평양-청진, 평양-신의주 등 물동량이 많은 일부 구간을 위주로 하여 중량레일 및 침목 교체작업이 진행되었으나
 - 30톤급, 60톤급, 100톤급 중량화차와 객차, 유조차, 냉동열차 등 전용화차의 생산에 있어서는 철도차량생산공장의 원자재부족, 기술 부족 등으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.

- 도로수송 및 해상수송에 있어서는 유류의 절대부족으로 수송실적이 전년동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원거리수송실적은 극히 부진하였음.

- 요컨대 기간중 북한은 급격히 늘어나는 수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철도전기화, 중량화를 통한 수송통과능력 제고에 주력하였으나 자원 부족으로 그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따라서
 - 종래와 같이 『5.18 무사고 정시전인 초과운동』에 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구조적인 수송애로는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.

3. 대외경제동향

가. 대외경제개방동향

- 북한은 기간중 경제개방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,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나진·선봉지역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기본 전략하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음.
 - '94.1월 최고인민회의 의장 황장엽이 중국의 주해 경제특구 등을 방문한데 이어, 북한측 경제부문 실무자들이 빈번히 중국의 경제특구를 시찰하였으며
 - '94.4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김정우의 방중시 길림성 당국과 『새별·훈춘 철도연결 및 나진항 개발에 관한 의정서』를 체결하고
 - 중국측의 자본·기술로 청진동항 확장공사 및 청진-회령간 도로확장 공사를 착공하였음.

- 서방권으로부터의 자본유치를 위해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관계자들이 '94.2 독일 두이스부르크상공회의소 및 동아시아경제협회(East Asia Pacific Business Association)의 협조로 두이스부르크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음.

○ 한편 북한은 '92~'93년에 이어 '94년 상반기중에도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법령정비를 계속하여 기존의 『합영법』('84년 제정)을 개정하는 한편

- 기제정된 『외국인투자법』, 『외국인기업법』, 『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』, 『외화관리법』, 『자유경제무역지대법』 등 기본법에 대한 시행규정들을 정무원 결정으로 발표하였음.

< '94년 상반기중 북한의 외자유치관련, 법령정비 현황 >

시 기	제정(개정) 법령	주 요 내 용
'94. 1. 20	합영법(개정)	(전5장 47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합영법의 기본 ○ 합영기업의 창설 ○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○ 합영기업의 결산·분배 ○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
'94. 2. 21	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 사무소 규정	(전 30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무소 설치·운영의 주체와 형태 ○ 상주기간 ○ 사무소 정원 ○ 사무소의 임무·기능 ○ 사무소 설치 및 등록증 발급

시 기	제정(개정) 법령	주 요 내 용
'94. 2. 21	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 규정	(전 8장 79조) ○ 소득세, 재산세, 상속세, 거래세, 지방세 ○ 제재 및 신소청원
'94. 3. 27	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	(전 8장 80조) ○ 외국인기업의 창설 ○ 투자절차와 방법 ○ 생산 및 유통 ○ 재정부기 ○ 노력관리 ○ 경영기간과 해산 ○ 감독 통제 및 분쟁해결
'94. 4. 28	자유무역항 규정	(전 4장 28조) ○ 항출입 ○ 항이용 ○ 제재 및 분쟁해결
'94. 6. 14	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류 규정	(전 21조) ○ 체류 구분 및 담당부서 ○ 등록절차 ○ 등록증 유효기간 및 연장 ○ 출입국 절차 및 수수료 ○ 제재

시 기	제정(개정) 법령	주 요 내 용
'94. 6. 27	외화관리법 시행 규정	(전 4장 61조) ○ 외화의 이용 ○ 외화의 반출입 ○ 제재

나. 대외무역동향

- 기간중 북한의 대외교역은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정치·군사적 긴장 고조, 대내 생산침체현상의 지속 등으로 교역여건이 악화됨으로써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, 일본, 러시아와의 교역규모가 모두 감소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.

< 북한-중국교역 >

-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교역은 '91년이래 매년 상승추세를 보여 왔으나 중국측의 경화결제에 의한 거래요구의 여파로 '94년 상반기중 교역규모는 3억 3,648만달러로서 전년동기비 22.0% 감소되었음.

< '94년 상반기 북한·중국 교역규모 >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4. 1~6월	'93. 1~6월	증 감 율
교역 총액	336,477	431,190	△22.0
북한의 수출	115,622	116,460	△ 0.7
북한의 수입	220,855	314,730	△29.8

○ 기간중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은 철강, 시멘트, 어류, 모피, 목재 등으로 이들 상품의 수출규모는 대중국 총수출액의 89.9%를 차지하였음.

- 주요 수출품중 가장 비중이 큰 철강(총수출액의 65.2% 점유)은 중국의 철강수입량 감소 움직임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비 13.3% 감소

- 전기기기 및 부품의 수출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('93년 196만달러 → '94년 8천달러)

- 반면에 어류, 석회·시멘트, 모피, 목재 등의 수출은 각각 증가되었는 바, 특히 어류, 모피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음.

<'94년 상반기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 구조 >

(단위 : 천달러, %)

순위	품 목 명	'94.1~6월 수출액		'93.1~6월 수출액	증 감 율
			수출점유율		
1	철 강	75,356	65.2	86,930	△13.3
2	석회·시멘트	10,764	9.3	7,530	42.9
3	어류·갑각류	7,738	6.7	3,630	113.2
4	모 피	7,188	6.2	10	7백배
5	목 재	2,901	2.5	1,950	48.8

- 한편 기간중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상품은 원유, 코크스 등 광물성 연료(전체 수입액의 43.8% 점유), 곡물, 플라스틱 등으로서
 -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성 연료, 곡물 등의 수입규모가 각각 감소현상을 보였는 바, 특히 곡물의 도입량이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.
 - 그러나 플라스틱, 화학생산품, 종자 및 공업용, 의약용 식물 등은 증가되었음.

< '94년 상반기 주요 수입상품 구조 >

(단위 : 천달러, %)

순위	품 목 명	'94.1~6월		'93.1~6월 수입액	증 감 율
		수입액	수입점유율		
1	광물성연료	96,716	43.8	114,660	△15.6
2	곡 물	13,830	6.3	74,100	△81.9
3	플라스틱	10,747	4.9	7,180	49.7
4	화학생산품	8,549	3.9	7,900	8.2
5	종자, 공업용 · 약용식물	7,013	3.2	6,110	14.8

< 북한-일본교역 >

- '94년 상반기중 북한-일본간 교역규모는 북한의 대일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영향을 받아 전년동기비 16.8% 감소된 1억 8,173만달러를 기록하였음.

< '94년 상반기 북한·일본 교역규모 >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4.1~6월	'93.1~6월	증 감 율
교역 총액	181,733	218,471	△16.8
북한의 수출	110,539	112,477	△ 1.7
북한의 수입	71,194	105,994	△32.8

○ 기간중 북한-일본간 교역의 특징은

- '91년을 고비로 북한-일본간 교역규모가 매년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, 금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
- 수출품목이 수산물, 석탄, 철광석 등 1차산품 및 봉제의류 등 단순 가공제품 위주의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며
- 불도저·굴삭기, 덤프트럭 등 건설용 기자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바, 건설용 기자재 수입의 급증은 나진·선봉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하여 주목됨.

○ 북한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은 임가공 봉제의류, 벗짚, 비금속광물, 갑각류·연체동물, 석탄 등으로 이들 품목이 대일 수출 총액중 차지하는 비중은 72.6%에 이름.

< '94년 상반기 주요 수출상품 구조 >

(단위 : 천달러, %)

순위	품 목 명	'94.1~6월		'93.1~6월 수출액	증 감 율
		수출액	수출점유율		
1	임가공 봉제의류	33,049	29.9	40,910	△19.2
2	벗 짚	16,875	15.2	8,334	236.6
3	비금속광물	10,918	9.8	16,897	△35.3
4	갑각류·연체동물	10,660	9.6	11,466	△7.0
5	석 탄	8,987	8.1	8,998	△0.1

- 기간중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은 임가공을 위한 직물, 가공섬유, 일반 기계, 수송기기, 전기기기 등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비중은 68.4%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
< 북한-러시아 교역 >

- 북한·러시아 교역규모는 '90년 25.6억달러 수준에서 '91년 4.7억 달러로 급감한 이래 3억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
 - '94년 1/4분기중 교역규모는 1,210만달러로서 전년동기비 약 43.7% 감소되었으며
 - 2/4분기중에도 쌍방간의 뚜렷한 교역증대 징후를 나타내지 못하였음.

다. 남북교역동향

- '94년 상반기 남북한 교역은 북한의 경제난 심화에 따른 교역상품의 부족, 경화부족 등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시설 사찰 문제로 야기된 남북관계의 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축되었음.
- 기간중 남북한 교역실적(통관기준)은 총 394건으로 전년동기 344건 보다는 증가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3.7% 감소된 8,239.4만달러에 머물렀음.

- 반입은 약 2,000만달러 감소, 반출은 약 700만달러 증가

< '94년 상반기 남북교역실적(통관기준) >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4. 1~6월	'93. 1~6월	증 감 율
총교역규모	82,394	95,522	△13.7
반 입	73,758	93,800	△21.4
반 출	8,636	1,722	약 5배

○ 한편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은 반입금액 기준으로 1,012.5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 실적 150.5만달러에 비해 약 6.7배 증가하였음.

- 주요 위탁가공품목 : 각종 직물, 남성용 자켓, 바지, 셔츠 등

< '93년 및 '94년도 주요 반·출입 품목 >

구 분	'94년	'93년
반 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철강금속(74.7%) - 금괴, 아연괴, 빌레트, 은괴 ○ 섬유류(11.3%) - 남자 자켓, 바지, 면타올, 남자 셔츠 ○ 농·임산물(7.4%) - 호도, 고사리, 낙화생, 한약재 ○ 기타(3.2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철강금속(87.2%) - 아연괴, 금괴, 은괴 ○ 농·임산물(6.5%) - 호도, 고사리, 도토리 ○ 섬유류(3.1%) - 남자 자켓, 바지, 면타올, 생사 ○ 기타(3.2%)

구 분	'94년	'93년
반 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섬유류(77.3%) - 직물류, 의류부속품, 오리털, 단추 ○ 화학제품(15.4%) - 벤젠, LDPE 필름, 페놀 ○ 수산물(1.1%) - 냉동 오징어 ○ 기타(6.2%) - 설탕, 비누, 시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학제품(43.6%) - 메탄올, LDPE 필름 ○ 섬유류(43.4%) - 직물류, 지퍼, 아크릴사, 레이블 ○ 기타(13.0%) - 알미늄 은박지

주 : ()내는 반·출입 비중임.

라. 대외경제협력동향

- 북한 총리 강성산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('94. 4. 6)에서
 - 북한에서 산출되지 않거나 부족한 원료·자재를 원만히 수입 보장하고
 - 대외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각종 가공무역과 되거리무역, 중계무역, 경제기술 합영·합작, 기술협조, 대외봉사활동의 적극화와
 - 나진·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여, 외국기업체들의 투자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벌여 『완충기간』에 많은 투자를 도입하며

-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·강화하고, 지리적으로 가깝고 거래조건이 유리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 및 경제거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음.
-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에 일치하여 북한은 기간중 식량, 고무, 면화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해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
-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수출산업의 관리운영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 마케팅 기술도입을 위하여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·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음.

< '93년 상반기중 주요 경제협력 활동 >

시 기	내 용
1. 15	○ 당비서 황장엽 일행, 중국 방문(1.15-23) - 광둥성 주해 경제특구시찰(1.19-21)
2. 25	○ 총련중앙 상임위 책임부의장 허종만 방북(2.25-3.2)
3. 10	○ 조선로동당 대표단, 라오스·월남 방문(3.10-17)
3. 24	○ 총련 일군대표단(단장:총련중앙상임위 선전국 리창구 부장) 방북 - 합영사업 협의
4. 2	○ 정부경제대표단(단장:홍성남 부총리), 파키스탄 방문(4.2-9)
4. 23	○ 베트남 공산당대표단(단장:당비서 홍 하) 방북(4.23-28) - 북한·베트남 경제협력문제 협의

시 기	내 용
4. 26	○ 재일본 조총련 중앙상임위 의장 한덕수, 제1부의장 이진규 등 방북(4.26-5.3)
4. 27	○ 중국공산당 당일군대표단(단장: 백극영) 방북(4.27-5.4)
5. 1	○ 총련 교토부 상공회대표단 방북(5.1-5)
5. 10	○ 짐바브웨 공화국 정부대표단 방북(5.10-14)
5. 31	○ 라오스직맹 대표단(단장: 캄팔 필라봉) 방북(5.31-6.6)
6. 7	○ 일·조 농업농민우호교류협회 대표단 방북(6.7-14)
6. 17	○ 조선 직맹대표단(단장: 주성일 위원장), 중국 방문(6.11-17)
6. 21	○ 철도협조기구 제22차 회의 참가 철도대표단(단장: 박용석 철도부장) 귀국
6. 21	○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사무총국장 김수식 방북(6.21-28)
6. 27	○ 당일군 대표단(단장: 남포직할시 책임비서 김상목) 중국 방문(6.27-7.8)

< '94년도 상반기 대외경제협력 관련 협정 체결 >

시 기	대 상 국	내 용
3. 24	세 네 갈	○ 공보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조인
5. 16	콩 고	○ 북한의 공보위원회와 콩고 우편 전기통신 및 통신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
5. 31	불가리아	○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 위원회 제19차회의 의정서 조인
6. 6	라 오 스	○ 경제과학기술 협조 협정 조인
6. 8	우크라이나	○ 무역,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조인

4. 종합평가

< 경제시책 >

- 1994년 상반기중 북한은 당 6기 제21차 전원회의('93.12.8) 결정에 따라 완충기('94~'96)의 중점과업으로 설정된 농업·경공업·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데 주력하였음.
- 북한은 1994년도 재정계획을 지난해와 같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, 농업 및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폭 증대시켜 낙후된 동부문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며
- 당·정을 비롯한 경제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경제인물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음.
-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견지하여 왔던 석탄, 전력, 금속공업 등 소위 『선행부문』 우선 경제운용은 완충기의 『전략부문』에 밀려 상당한 정도로 약화되기는 하였으나
- 그렇다고 하여 『선행부문』의 정책적 비중이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만큼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.

- 따라서 1994년도 북한의 경제시책은 『선행부문』 우선 경제운용을 유지시키는 기본 바탕위에서 농업, 경공업, 무역 등 『전략부문』의 발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.

< 농업·경공업·무역제일주의 방침관련 추진동향 >

- 북한은 농업제일주의 방침 관철과 관련, 농업부문에 대한 '94년도 재정투입계획을 지난해의 2.8%에서 6.0%로 대폭 증액시키고 투자재원을 『농촌4화』중 특히 기계화·화학화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음.
- 그러나 기간중 북한의 트랙터 공장, 화학비료공장 등 연관산업부문의 생산설비 확장 내지 현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데다가
 -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에 봉착함으로써 기존 설비의 정상적 생산 활동도 부진, 농업부문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이에 따라 기간중 농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철도수송부문의 구조적인 수송애로는 비료, 농약 등 영농 자재의 적기·적지공급에 큰 차질을 빚어 농작물의 비배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음.

- 경공업제일주의 방침과 관련하여 북한은 경공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을 지난해의 4.0%에서 5.4%로 상향 책정하고 기존 중앙 경공업과 지방공장의 설비 현대화에 주력하기로 하였음.
- 이에 따라 기간중 경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출공장·기업소의 조업과 함께 노후시설의 개체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내수용 생산부문의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또한 무역제일주의 방침 관철과 관련해서 북한은 수출품생산기지를 확대 강화하고 생산품의 품질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음.
- 그러나 상반기중의 대외 무역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는 바
 - 이는 기간중 위탁가공교역 및 중국의 건설수요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
< 여타 주요 산업부문 동향 >

- 한편 석탄, 전력, 금속공업 등 『선행부문』을 비롯한 여타 기간산업 부문에서는
 - 재정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각공장·기업소들로 하여금 투자재원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『증산·절약투쟁』으로 일관함에 따라

-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, 노동의욕 상실 등으로 전년동기의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수송부문 역시 수송애로 해소의 일환으로 철도전기화·중량화가 물동량이 많은 구간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였음.

< 종합 평가 >

- '94년 상반기중 북한경제는
 - 북한 핵문제의 지속, 재정사정의 악화, 구조화된 생산침체현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
 - 『선행부문』 우선 경제운용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『전략부문』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였으나
 - 『선행부문』 및 『전략부문』 모두에 정책적 부담만을 분산·확대시켜 오히려 정책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
 - 이러한 성장선도부문의 위축은 여타 산업부문에까지 확산됨으로써 북한경제 전반이 활기를 상실하였던 것으로 평가됨.